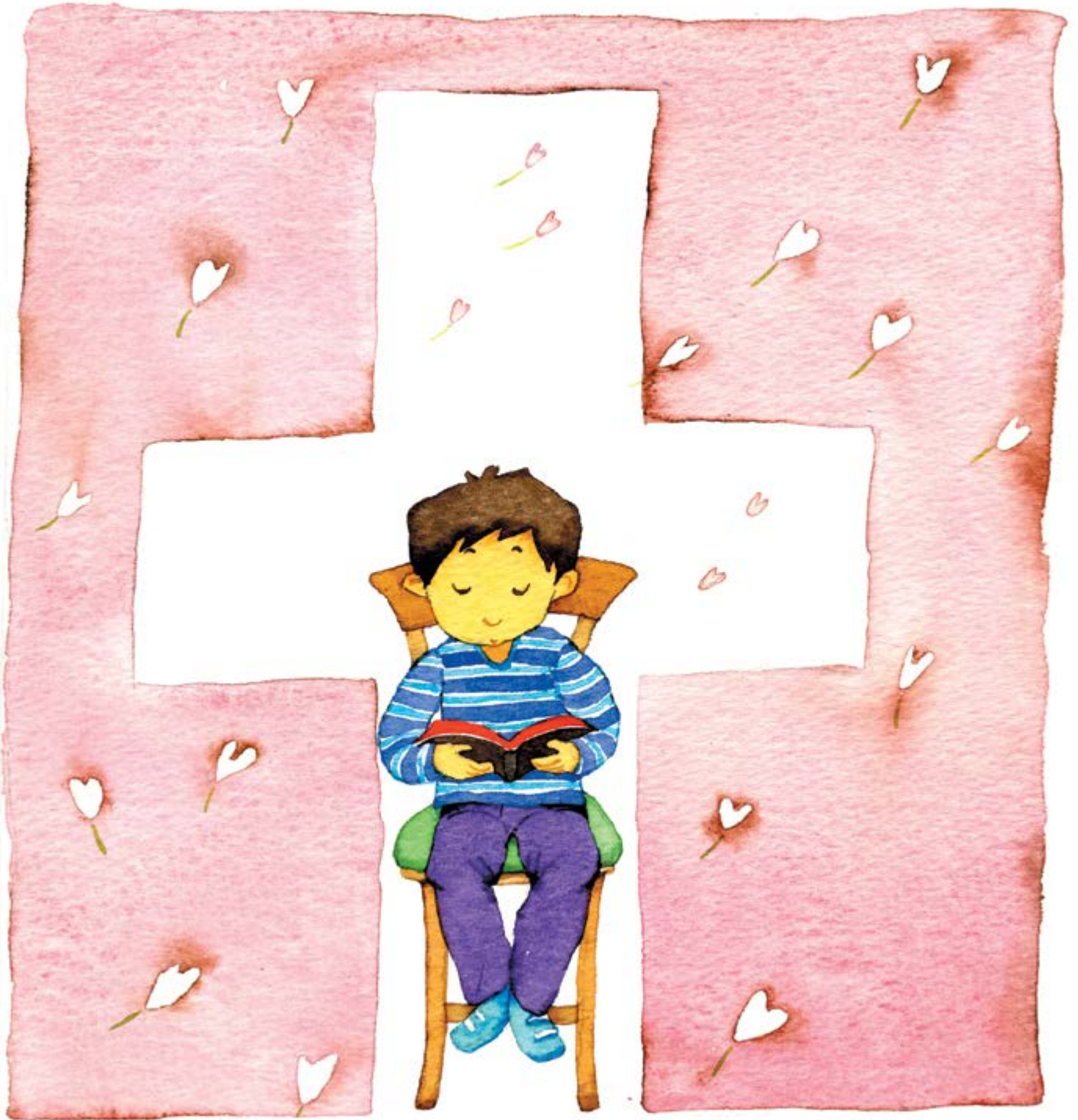




2월 4일



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편지예요.  
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요.  
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?



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일,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들  
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요.

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.



귀로 들은 이야기는 금방 잊을 수 있어요.  
잘못 기억할 수도 있지요. 하지만 성경말씀은 글로 쓰여 있기  
때문에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잘못된 것이 없이 언제나  
똑같은 말씀입니다.

옛날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보았을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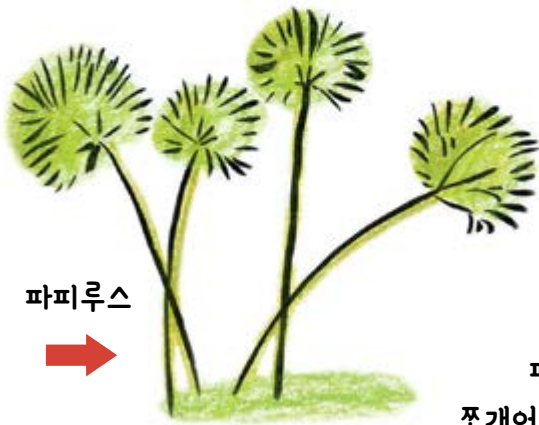
종이가 없던 옛날에는 갈대로 만든 종이, 흙으로 만든 판, 양의 가죽에 성경 말씀을 썼어요.



← 흙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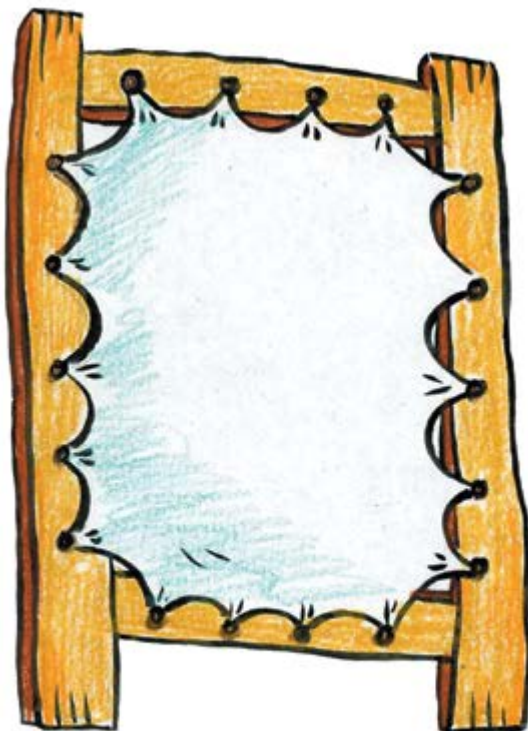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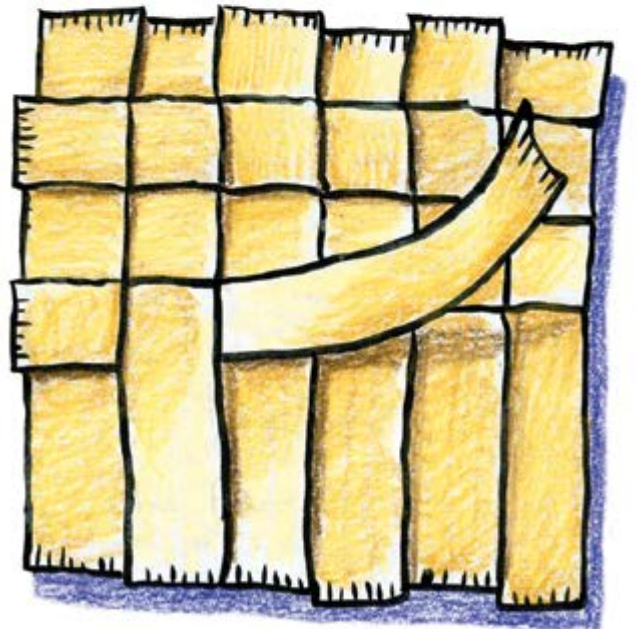
↑ 흙판에 글을 새기는 도구



파피루스



파피루스를  
포개어 만든 종이



← 양 가죽을 넓게  
펴서 만든 종이

두루마리 성경을  
보관했던 항아리



# 생각하는 아이

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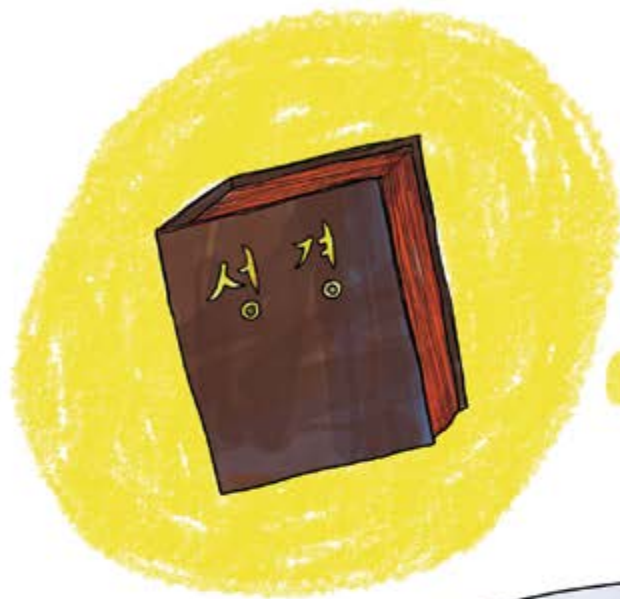
"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나요?"

선생님께서서는 남우의 물음에 잠시  
생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.

"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 
만난단다."

남우는 눈을 깜빡였어요.  
선생님께서 이어서  
말씀하셨습니다.





"남우는 아빠에게 편지를  
받아본 적 있니?"

"네."

남우는 아빠가 멀리 출장  
가셨을 때 편지를 보내주신 일을 말씀  
드렸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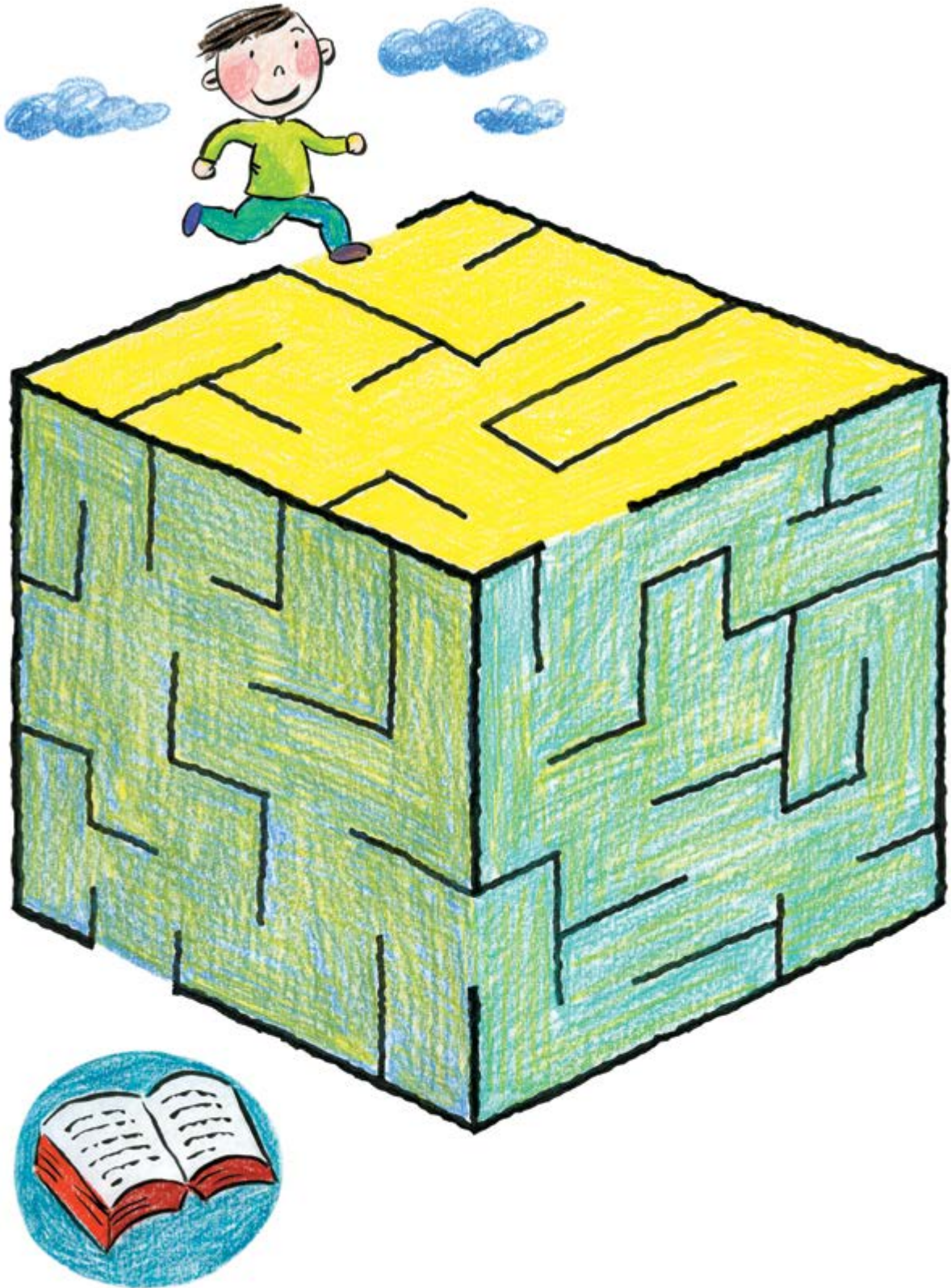
"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고 싶은  
이야기를 성경에 써 놓으셨어.  
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란다."

남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.

"그럼 하나님께서는 편지에 무슨 이야기를  
써주셨어요?"

# 즐거은 한글 동영

하나님 말씀을 찾아 달려가 보아요.





# 마음속 암송

## 따라 쓰기

평생에 자기 옆에  
두고 읽어서  
신명기 17장 19절

## 다시 쓰기

--	--	--	--	--	--	--	--

--	--	--	--	--

--	--	--	--	--	--	--	--	--

선생님께

부모님께